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새해, 벌써 1월 일입니다. 국제 정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력 시위와 이란의 반정부 시위 비보로 불안에 떨고, 국내는 특검을 둘러싼 날 선 대치와 검찰개혁의 먹구름, 예측 불가능한 주식 시장의 급등락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동하는 시대 일수록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예민한 지표는 종종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근본적인 뿌리인 농촌의 고단한 현실 속에 두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촌의 빈곤율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노르웨이의 10배에 달하고 도시 빈곤율의 2~3배를 훌쩍 넘어섭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57.6%로 대도시보다 15% 이상 높다고 합니다. 소득의 차이를 넘어 자산 격차까지 고려하면 그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

에서조차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농촌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농의 만연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판로와 대자본에 유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는 농민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비극은 '농촌 노령화'라는 거대한 수렁입니다.

이제 무슨 작물을 심든 농업소득만으로는 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 나기 어렵습니다. 영세농 대책, 수입 농산물 축소, 청년 노동력의 농

설치 기법 개발이나 유휴 농지 활용 같은 해법 연구가 진행되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모든 해법은 결국 '어떻게 함께 실현할 것인가'라는 공동체적 물음을 던 집니다.

이처럼 절박한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집니다.

성경은 약한 자를 돌보고, 땅을 가꾸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농촌의 빈곤과 그 해법

촌 회귀가 없는 한, 이 구조적인 가난한 농가 생활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농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합니다.

햇빛마을과 AI 스마트팜은 새로운 소득원이지만, 막대한 투자 자본과 토지 확보라는 난관을 안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농지 훼손 불가 원칙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

공동체 붕괴의 위기이며, 교회는 이 위기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위로만을 전하는 것을 넘어, 농촌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옛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지지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과 에너지 전환이 개별 농가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 동력이 되도록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주권기독교대 공동대표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레 26장에서 경고하시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레 26:27-35, "27.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33.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출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35절의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서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그

희가 너희의 본토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 안식년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일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안식년과 희년이 오더라도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이 죄를 비롯한 갖가지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여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의 본토는 쉬게 될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땅 안식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으시어 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만 생각하기 쉽다. 물론 이것도 진실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이시기에 하고 또 반대로 내쫓으시기에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을 모두 중심에 두고 읽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심이 바로 크리스

토지의 안식과 국가의 존망

땅'은 그 앞의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원수의 땅'이 아니라 '너희의 본토'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의 본토'를 말한다. 그래서 35절의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이란 "너희가 너희의 본토에 거주하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35절에서,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라는 번역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하였으나 가나안 땅은 안식하지 못했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번역으로 잘못된 번역이다. "너희가 안식할 때에 (베스카바베토테이킴)"은 올바르게 직역하면 "너희 안식년에"라는 뜻이다. 여기서 '안식년'으로 번역한 단어인 '베스카바바트'는 안식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땅의) 안식년'이라는 뜻도 있다. 대표적으

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가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구약 윤리 삼각형의 세 꼭짓점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땅. 이상은 이스라엘 세계관의 세 기둥이며 그들의 신학과 윤리학의 주요 요소들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삼각관계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의 관계는 다른 물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작용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지만, 땅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땅의 관계, 사람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레 26:27-35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기간 동안 그 땅은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게 되었다(레 36:15-21).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의 토지 안식은 이스라엘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35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생각 해본 적이 있는가?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것이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도,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행복한가?" 묻고 싶다. "내가 행복한가?" 고민도 되고 '내가 언제 행복했지?'라며 생각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려면 또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확실한 것은 행복은 느끼는 감정이지만 입으로 또 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행복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인가 되거나 무엇을 가지게 되었을 때, 또 주어진 무엇을 해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무엇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통해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알아갈 때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스포츠나 음악, 미술, 여행, 가족, 친구 등을 통해 다양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의 시기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하여 직장을 다니기

일까?

〈아들과 아빠의 감동적인 대화〉라는 유튜브의 인기 짤에 나오는 대화이다.

"왜 엄마를 엄마라고 해?"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엄마를 아빠라고 하냐?" "치, 아빠 미워!" "엄마를 왜 엄마라고 할까? 음,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아빠는 왜 아빠라고 해?"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는 왜 아버

"행복의 조건?"

위해 12년을 학교에 다니며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원하는 일을 이루면 행복할까? 원하던 일을 이루었을 때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새로운 일의 시작일 뿐이다. 전혀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하는 일인 것이다. 그 먼 날의 행복을 위해 지금, 매일은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매일 그리고 지금의 행복은 누구의 것

지라고 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야" "그럼 아빠도 많이 힘들어?" "조금" 아빠가 힘들다는 소리에 아들은 "아빠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하는 지 알아?"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하하" "아빠 힘든 일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긴 여운이 남는 말이다.

나는 청소년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너무 큰 목표와 너무 먼 미

래의 어떤 성과를 행복의 목표로 삼다가 매일 매일의 작은 일에 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행복의 기준을 때로는 작게, 그리고 먼 미래도 좋지만 매일 매일 이루 수 있는 평범하지만 아주 작은 기준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친구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등을 '나는 행복하다'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매일 매일 행복한 삶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하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신명찬 미래1,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도용품 · 기념품 · 기획상품

전도용품

-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항상 기억할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100원~200원대)
- 전도 및 심방시 사용 할 수 있는 심방 전도용품

기념품&행사용품

- 위임, 임직, 헌당 등 각종 행사에 맞는 제품
- 초청장, 식순, 기념패, 기념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성경과 교회가 디자인 된 주일학교 가방 및 전도용 가방
- 고급타올 및 우산, 예배상, 무릎담요

기획상품

- 핸드 페인팅 도자기 그릇
- 강화유리접시
- 전통옹기찬기
- 키친아트 파카글라스
- 아름다운 문양의 공기대접
- 다양한 그릇, 잡화, 생활용품

(이 모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대경물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5-35 (전대 치과대학 맞은편)
TEL.062)430-5635 FAX.575-5635
H·P.010-2662-5440

건축물 유지보수 외부 · 외벽공사전문

옥외간판 · 십자가 · 외벽 유리청소 · 방수, 페인트

시외 장거리가능 / 건물가치와 수명연장

1톤 · 3톤 · 5톤 굴절스카이 전차중 임대 가능

정미한 공사 환영

건축물외부,외벽공사
안전장비 고소작업 스카이라와
전문인력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린 텍 손전화 010-3641-0675 김종운집사